

M. 하이데거: 일상의 발견

- <존재와 시간>에 나타난 현존재의 일상성과 결단성에 관한
속고를 바탕으로 -

조 형 국(한국외국어대)

【주제분류】 현상학, 해석학

【주 제 어】 현존재, 일상성, 결단성, 사람들(das Man), 삶의 방식
(Modus Vivendi)

【요 약 문】 일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결단성이란 무엇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하여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분석된 현존재의 일상성과 결단성의 의미를 반성해봄으로써 답해보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일상적 삶의 존재양식을 잡담(Das Gerede), 호기심(Die Neugier) 그리고 애매함(Die Zweideutigkeit)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일상적 삶에 내던져짐과 빠져들음으로 인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양한 삶의 한계상황을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불안과 양심의 소리 그리고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봄이라는 실존적 결단을 통해 본래적 삶의 세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하게 되는 현존재의 결단은 새로운 삶의 방식(Modus Vivendi)을 다시-선택해서(re-legere) 본래적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종교의 본질적 의미와도 상통한다.

우리는 일상에 빠져들기와 거리두기를 반복함으로써 사람들 세계와 자기 세계의 긴장 혹은 화해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질적인 삶의 비약을 꿈꾼다. 이는 현존재의 존재자체가 바로 자신의 존재가능을 염려(Sorge)하는 데서 기인하는 인간적 삶의 근본특성이다. 우리는 일상과 결단의 경험을 통하여 삶의 따사로움과 포근함 그리고 삶의 고귀함과 진지함을 모두 살고 있는 것이다.

일상 속의 결단, 결단 속의 새로워진 일상 그리고 이러한 삶의 운동의 반복됨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자기이해에로의 길 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1. 들어가는 말

디지털 기술과 퓨전육망의 만남으로 더욱더 사치스러운 웰빙문화를 추구하는 오늘날, 왜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해져가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 대하여 다시 물음을 던지고자 하는가? 그리고 왜 삶의 중심잡기와 연관된 그때그때마다의 우리의 결단성에 관해 숙고해 보고자 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성(Alltäglichkeit)¹⁾과 결단성(Entschlossenheit)²⁾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어떠한 삶의 방식(Modus Vivendi)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적 삶은 삶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날로 고급화되고 명품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이는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적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된 오늘의 트렌드이다. 그래서 오늘의 일상세계는 결국 우리들의 퓨전육망과 디지털 기술이 열어밝힌 새

1) “‘일상성’은 현존재가 우선 대개 살아가는 존재 양식을 말한다. 우리말 ‘일상성’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특성을 일컫는다. ‘일상’이란 ‘날마다’, ‘다른 날들과 다름없는 보통의 날’(평상), ‘늘 되풀이되는 나날들’, ‘하루하루’ 또는 ‘그날 그날’(매일) 등을 뜻한다. 독일말 ‘Alltäglichkeit’ 속에는 ‘alle Tage’(모든 날들)가 들어 있다. 따라서 ‘일상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날의 모습’, 하이데거를 따라 말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나날들 속에서 ‘우선 대개’의 방식으로 ‘실존하는 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나날들’을 보통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나 이 ‘나날들’은 결코 누군가가 일생을 거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날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기상, 『하이데거에서의 일상의 의미(일상과 과학, 실존과 탈존)』, 『예술가를 위한 철학강의 ‘일상의 미학’』, 일주아트하우스, 2001. 9. 8. 4쪽.

2) 현존재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사람들’의 논리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강조한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떠맡고,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가능을 염려하며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때 그때마다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로운 세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워진 세계 안에서 우리들은 목적가치와 수단가치를 잘 이해한 터 위에, 일상이 작품이 되는, 즉 우리들의 시간과 욕망 그리고 신체가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삶을 디자인해가려고 노력한다.³⁾ 하지만 집단적 모방심리에 따라 뒤틀려지는 욕망과 인간적 가치를 도외시한 기술의 위력에 짓눌려 우리들은 '우선 대개'(zunächst und zumeist)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과 욕망의 환상적인 랑데뷰로 인해 소유가 존재를 앞서고, 소비가 존재함의 이유가 되는 욕망하는 인간이 그런대로 잘(well) 살아가는(being) 인간이라는 이해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람 읽기와 일상적 삶 읽기의 눈은 우리의 주위세계의 변화와 내면세계의 중심잡기의 부조화에서 기인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에 빠져 있는 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눈의 욕망은 앞으로 우리들 개개인의 의지를 벗어난 집단적 모방욕망과 (디지털)기술의 확장적 진화의 힘에 따라 더욱더 '사람들'(das Man)의 논리에 편승하여 평균적(중산층)인 삶을 보장한다는 위안을 제공하며 우리들의 일상의 설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드러나는 일상성에 대해 하이데거가 현상학적 시각으로 잘 기술하면서 말한 바에 동의하며 필자는 이러한 일상성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속물근성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필자는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현상학적인 눈으로 읽어낸 터 위에 새로운 삶 - 본래적인 삶 - 의 구성을 위한 반성과 제안을 이야기함으로써 각자 자기 자신의 건강한 삶을 살고, 자신의 결단을 통해 새롭게

3) 앙리 르페브르는 현대세계에서의 우리의 일상이 자주적 관리를 통해 하나의 작품의 의미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우리가 새로운 문화혁명 - 성혁명과 개혁, 도시혁명과 개혁, 일상에서 축제에로의 이동 등 - 을 수행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참조.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파랑, 2005.

열어밝힌 세계의 의미를 더불어 있음(Mitsein) 가운데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의 세계-안에-있음을 적중시키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을 펼침에 있어 필자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보여준 현존재의 일상성과 결단성에 관한 내용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하이데거가 현존재분석을 시도하면서 현존재의 일상적 열어밝혀져 있음을 현상학적인 봄으로 탁월하게 드러내고, 현존재의 존재의미를 시간성에서 찾으며 불안과 양심 등의 인간존재의 현상을 통해 시간을 사는 현존재의 결단성을 분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 읽기를 위한 지도에 기대어 필자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결단성 개념이 불안과 양심 등을 통해 새롭게 열어밝혀진 세계를 다시 선택하여(re-legere) 더 깊고 풍부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본래적 삶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존재와 시간』에 나타난 일상적 삶의 존재양식, 즉 잡담(Gerede), 호기심(Neugier) 그리고 애매함(Zweideutigkeit)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현존재의 일상적 세계에 빠져듦(Verfallen)과 내던져져 있음(Geworfenheit)에서 기인하는 일상적인 열어밝혀져 있음의 특성과 '사람들'(das Man)의 논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자기 자신을 사는, 다시 말해 본래적인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관련된 결단성에 대해 논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상의 한 가운데에서 삶의 그때 그때마다 피어오르는 불안과 양심의 부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봄(Vorlaufen in den Tod)이라는 우리들의 실존적 결단은 새로운 차원에서 환하게 열어밝혀진 자기 자신의 세계의 맛봄과 동시에 더 깊고 풍요로운 더불어 있음을 사는 본래적 삶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2. 삶의 '거기에'(Da)의 일상적 존재양식과 세계

1) 잡담(Das Gerede, '뒤따라 말함과 퍼트려 말함')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일상적 삶의 '거기에'(Da) 있는 존재양식 중 하나로 꼽는 잡담(das Gerede)은 우리의 몸의 기관 중 입(말함, 이야기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구성하고 확고히 해 가는가? 바로 입(말함, 이야기함)과 눈(호기심)을 통해서이다.

우리의 신체기관 중 욕망과 관련해서 입과 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상적 현존재들은 대부분이 입과 눈을 통해 욕망의 문제를 나름대로 조절해가며 살아간다. '사람들'의 세계에서 퇴지 않을 정도로 은근히 또는 은밀하게 해결해 가는데, 우선 우리의 말함(입)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인간 현존재의 삶은 거의 말함(이야기함)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말해진 것(이야기된 것)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말해진 바의 세계 속에서 웃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여기서 잠깐 말함(이야기함)으로 구성되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기로 하자. 아기가 태어나 축하하는 일,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일, 죽어서 저 하늘나라로 가는 일들이 모두 말함(이야기함)으로 선포가 되고 인정이 된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있음(존재)이 겪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휴대전화까지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이러한 휴대전화는 사람들의 말함의 욕망과 눈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 DMB 폰 등 - 끝없이 새로운 변모를 채근당하고 있다. 날로 발전해가는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대개 빠져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시공간을 넘어 무제약적으로 더욱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터넷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힘으로 우리는 거의 시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쌍방향적 소통문화를 이룩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의 사건들에 대해 실시간 취재와 보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함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말함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영향연관으로 엮어진 삶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의 차원에서 어떠한 담론들이 유행되고 있는지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개 말함, 이야기함으로 구성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있음의 양식을 하이데거는 잡담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이 잡담이라는 표현은 깎아내리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잡담은 일상적 현존재의 해석과 이해의 존재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잡담의 세계를 구성하는 말은 대개 밖으로 말해지며 이미 언제나 밖으로 말해져왔다. 그런데 이 경우 밖으로 말해진 것 안에는 각기 이미 평균적인 이해와 해석이 들어 있다. 밖으로 말해져 있음으로써의 언어는 자신 안에 일종의 현존재 이해가 해석되어 있음을 간직하고 있다.⁴⁾ 그리고 이러한 밖으로 말해진 말은 함께-나누어진다. 함께-나눔의 존재경향은 듣는 사람이 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것을 향한 열어 밝혀진 존재에 함께 참가할 것을 겨냥하고 있다.

우리의 평균적인 이해가능성은 말이 자기를 밖으로 말할 때 말해진 언어 안에 이미 들어 있는데, 이 평균적인 이해가능성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진 말이 널리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듣는 이는 말의 '그 것에 대해서'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려는 존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이야기되고 있는 존재자를 그리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이

4) M. Heidegger, *Sein und Zeit*(GA2),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77. 222-223쪽.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8. 230쪽. (이하 **SZ**, 『존재와 시간』으로 표기).

미 단지 이야기된 것 그 자체만을 들을 뿐이다. 이야기된 것 그 자체는 이해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저 대충 피상적으로 이해된다. 흔히 인터넷상에서 연예인이나 특정 광고기획회사에서 만든 'X 화일'이 떠돌아다녀 온갖 사회적 물의 -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는 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로 엮여진 정보들 - 가 일어나는 현상과 악성 댓글 풍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상적 삶 속에서 사람들의 말은 평균적인 이해가능성에 따라 함께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회자된다. 어쨌거나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말해진 것을 공통적으로 비슷한 평균성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⁵⁾

말이란 세계-내-존재의 처해 있는 이해가능성을 의미부여에 맞추어 분류하는 것이다. 말의 구성적 계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말의 거기에 대해서(관련체), 말해진 것 그 자체, 함께 나눔과 표명이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서는 '말해진 것 그 자체'와 '함께 나눔'만이 그 위세를 떨치게 된다. 말함에서는 말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존재자를 근원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퍼트려 말하고 뒤따라 말하는 방법으로 나눔 뿐이다. '이야기된 것 그 자체'가 범위를 넓혀가며 권위의 성격을 떠맡는다. '사실이 그렇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한 뒤따라 말함과 퍼트려 말함에 의해서 이미 시초부터 결여되었던 지반이 완전한 무지반으로 치닫는데, 이러한 뒤따라 말함과 퍼트려 말함이 잡담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⁶⁾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이러한 잡담현상을 부추기는 것들 중 단연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나 인터넷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든 회사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이든 농촌에서 과일을 재배하는 농부든 오늘날엔 어느 누구도 인터넷을 무시하고는 살아가기

5) SZ, 223쪽. 『존재와 시간』, 231쪽.

6) 참조. SZ, 223-224쪽. 『존재와 시간』, 231-232쪽.

힘든 세상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어떤 뉴스나 콘텐츠를 읽거나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잡담의 세계에서 소외당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 여행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해석해 주는 세계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받는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 속에서 토론도 하고 댓글도 달아가면서 사람들은 어느 사이트의 세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뒤따라 말하고 퍼트린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평균적 이해는, 무엇이 근원적으로 길어내어져 획득된 것이고 무엇이 뒤따라 말해진 것인지를 결코 결정할 수 없다. 더더구나 평균적인 이해는 그런 구별을 전혀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이해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잡담의 세계에서 우리는 대개 어떤 물음이 생겨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괜히 나서서 말해 분위기 깰 필요 없어'라고 마음속으로 되 내이면서 '사람들'의 분위기 속으로 편승하려는 심리적인 안정장치를 스스로 마련한다. 모두가 웃으며 모두가 즐거워한다. 온갖 프로파간다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 세계 속에 빠져 드는 우리들은 평균적으로 해석되어 있음의 자명성과 자기 확신 속에서 짜릿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2) 호기심(Neugier, 눈의 욕망과 호기심)

짜릿한 일상세계에서의 우리의 봄(시야)의 근본구성들은 '보는 것'에 대한 일상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경향이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를 호기심(Neugier)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즉 "모든 인간은 본성상 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으로부터 인간의 존재에는 본질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염려가 전제되어 있다고 유추한다.⁷⁾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이데거

가 일상적 현존재의 존재양식 중 호기심이라고 명명한 것은 우리의 시야, 즉 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봄의 기이한 우위를 누구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욕망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본디 눈에 딸린 것이 보는 것인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감각으로 무엇을 알려고 할 때에도 보다라는 낱말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들으라, 얼마나 번쩍이는지’, ‘맡으라, 얼마나 빛나는지’, ‘입을 대라, 얼마나 찬란한지’, ‘만져라, 얼마나 눈부신지.’ 그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보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이 보인다고 말한다. 따라서 눈만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을 ‘보라, 얼마나 빛나는지’할 뿐 아니라, ‘소리를 들어보라’, ‘냄새를 맡아보라’, ‘맛을 보라’, ‘얼마나 단단한지 만져보라’ 하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의 감각적 경험을 ‘눈의 탐욕’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나머지 감각들도, 비슷한 점에서 인식함이 문제가 될 때면 눈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봄의 기능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⁸⁾

이렇듯 우리의 눈의 탐욕과 관련된 실존론적 구성틀인 호기심에서는 어떠한 일상적 존재양식을 말할 수 있는가? 세계-내-존재인 현존재는 “우선 자신이 신경 쏟고 있는 세계에 몰두해 있다. 현존재의 배려는, 손안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것의 발견되어 있음에서 보존하는 둘러봄에 의하여 이끌리고 있다. 둘러봄은 모든 제시와 실행에서 처치의 노선, 시행의 수단, 올바른 기회, 적합한 순간을 제공한다. 배려는 실행을 중단하고 쉬다는 의미에서나 또는 일을 마쳐서 쉬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식 속에서 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둘러봄이 자유로워져 더 이상 작업세계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 쉴 때 염려는 자유롭게 된 둘러봄으로 옮겨간다.

7) 참조. *SZ*, 226-227쪽. 『존재와 시간』, 234쪽.

8) *SZ*, 227-228쪽. 『존재와 시간』, 235쪽.

작업세계를 둘러보며 발견함은 거리 없앰이라는 존재성격을 가진다. 자유로워진 둘러봄은 더 이상 가깝게 배려해야 할 어떤 것도 손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둘러봄은 본질적으로 거리를 없애는 둘러봄으로서 자신에게 거리 없앰의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해준다. 이것은 둘러봄이 가까이 손안에 있는 것에서 나와 멀리 있는 낯선 세계를 지향한다는 말이다.”⁹⁾

우리는 대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세계 속에 빠져 있다. 여유 있는 마음과 안식을 가질 틈도 없이 정신없이 무언가에 신경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작업의 세계가 되겠지만 그 빠져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묘한 만족감 같은 기분도 느낀다. 그런데 이러한 기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새로운 낯선 세계에로 향한다.

낯선 존재자의 영역에 대해 거리를 없애가며 찾아가지만 그것에 대한 진정한 열어봄, 즉 그 존재자의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유롭게 된 호기심은 그 낯선 세계에서의 새로운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봄의 염려에서 중요한 것은, 파악하여 알면서 진리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계에 맡겨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호기심은 특이하게 가까운 것에는 머물지 않는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호기심은 또한 고찰하며 머무는 여가도 추구하지 않으며, 언제나 새것과 만나는 것을 계속 바꿈으로써 생기는 동요와 흥분을 찾아 나선다.

호기심은 아무 데도 머무르지 않음으로 해서 부단히 산만함(부산함)의 가능성을 배려한다. 호기심은 존재자를 경탄하면서 고찰하는 것, 즉 타우마체인(thaumazein)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¹⁰⁾

9) SZ. 228-229쪽. 『존재와 시간』, 235-236쪽.

10) SZ. 229쪽. 『존재와 시간』, 236쪽.

우리는 대개 이러한 눈의 탐욕과 관련된 호기심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고 있다.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들은 눈의 욕망을 채울 수 있고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들에 끊임없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이 욕망으로 가득한 시선은 곧 소비의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호기심이라는 눈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소비가 삶의 최고의 낙이며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쇼핑하는 인간(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의 삶의 방식이 최신의 트렌트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살아있는 생활을 보장해주는 존재방식이 된다.

에릭 프롬(E. Fromm)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존재양식이 아닌 소유양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러한 일상적 현존재의 붐의 경향, 즉 호기심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호기심이라는 붐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존재(삶, To Be)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To Have)가 최대의 관심거리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삶)가 바로 소유이기 때문이다. 소유함으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굶기야 소유가 존재를 앞지르게 된다. 소비와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보증해준다는 환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힌 채 많은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호기심이라는 눈의 욕망에 사로잡혀 소유의 양식을 중시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로부터는 회피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존재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공허하고 허탈해지는 기분에 젖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함과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소유물)을 찾아 헤매게 된다.

만일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아 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일상의 지루함 때문에 숨이 막힐 것이고, 그러한 권태 속에서 더 강력한 향락의 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도 아니면 마침내 자살

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가능성 사이에는 다양한 삶의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상식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한 자기 자신의 세계에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보통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에 놀라서, 즉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부한 가능성에 놀라서 섬뜩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섬뜩함을 회피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또다시 고유한 '자기 자신'의 세계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것이다.¹¹⁾

삶의 거기에(Da) 있음 속에서 우리들의 중심잡기는 이처럼 눈의 탐욕과 더불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기에 쉽지 않은 과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함과 봄의 일상적 존재양태(잡담과 호기심)는 “다 같이 뿌리 뽑히는 경향에 있으면서 단순히 나란히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방식이 그 자체로 다른 존재방식을 부추긴다.

달려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호기심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잡담은 자신에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현존재에게, 추정상의 진정한 '살아 있는 삶'을 보장한다. 이러한 추정과 더불어 일상적 현존재의 열어 밝혀져 있음을 성격 규정하고 있는 세 번째의 현상이 드러나게 된다.”¹²⁾

3) 애매함(Zweideutigkeit,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성격')

우리가 앞서 논의한 일상적 현존재의 존재양식인 잡담과 호기심이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한마디로 '가상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가상적인 세계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11) 참조. 이기상/구연상, 『〈존재와 시간〉 용어해설』, 까치, 1998. 319쪽.

12) *SZ*, 229-230쪽. 『존재와 시간』, 237쪽.

이러한 사람들의 세계의 성격은 애매할 수밖에 없다. “일상적으로 서로 함께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진정한 이해 속에 열어 밝혀진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더 이상 금세 결정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애매함은 단지 세계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서로 함께 있음 거기에도, 심지어는 현존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까지 퍼져 있다.”¹³⁾

일상적 삶의 애매함은 특히 서로 함께 있음에서 발원하는 것인데, 잡담은 우리의 서로 함께 있음 사이로 교묘하게 끼어들으로써 삶의 애매함을 더욱 조장한다. 우리들의 일상적 삶이란 서로 함께 있음이라는 공공의 열어 밝혀져 있음 안에, 가장 요란한 잡담과 가장 숨씨 좋은 호기심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듯한 가상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 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기’(Da)이다.¹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세계가 이렇듯 애매함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일상적 삶 속에서의 우리들의 서로 함께 있음에 대해 현상학적 분석을 제시해 준다.

“사람들 속에 서로 함께 있음은 절대로 폐쇄되어 무관심하게 옆에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긴장 속에 애매하게 서로를 살피며, 몰래 서로 엿들으며 있는 것이다. 서로를 위한다는 가면 아래 서로를 적대하는 연출을 진행하고 있다.”¹⁵⁾

우리는 저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

13) *SZ*, 230쪽. 『존재와 시간』, 237쪽.

14) 참조. *SZ*, 231-232쪽. 『존재와 시간』, 239쪽.

15) *SZ*, 231-232쪽. 『존재와 시간』, 239쪽.

러한 가면을 쓰는 행위는 우리 모두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위선적 삶을 살려고 해서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친한 서로 함께 있음이라도 거기에는 현존재에 대한 현존재의 관계라고 하는 긴장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남녀와 계층 그리고 직위 등의 수많은 차이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이를 우리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말투에 신경을 써가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돌을 대하듯이 타인을 대할 수 없으며, 볼트와 너트의 딱 들어맞음과 같은 정확함이 우리들의 삶의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삶의 애매함은 세계 안에 내던져져 있는 우리들의 서로 함께 있음이라는 그 존재양식 속에 이미 들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매함은 공공적으로 은폐되어 있으며, 우리들은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애매함을 은근히 즐기며 살아간다. 만약 이러한 애매함이 견디기 힘들다고 삶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폭로하려 하는 이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저항할 것이다. 흔히 우리사회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라든가 ‘다 알면서 왜 그래?’ 라는 삶의 태도는 일상의 애매함을 적절히 소화해내는 사람들의 처세술인 것이다.

3. 일상적인 열어밝혀져 있음과 ‘사람들’(das Man)

우리는 집담, 호기심 그리고 애매함이라는 일상적 존재양식을 살펴 보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열어밝혀져 있음의 대강의 줄거리를 엮으면서 사람들의 논리와 문법에 대해서도 말한 셈이다. 그럼 이제 우리들의 일상적인 열어밝혀져 있음이라는 사태를 특히 타인과 더불어 있음(Mitsein)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현존재는 도구와 사물들과의 배려하는 관계와 타인들과 더불어 있음 속에서 ‘우선 대개’ 일상적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 삶의 ‘거기’의

일상적 존재인 잡담과 호기심 그리고 애매함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빠져들으로써 사람들의 세계를 즐기며 살아간다. 이렇듯 일상적으로 열어밝혀져 있음 속에서 현존재는 일종의 분주함과 향락 - 다양한 볼거리와 걸치레, 먹거리를 찾아 나섬 - 그리고 다양한 재미를 쫓으며 포근함과 안도감 같은 기분을 느낀다. 또한 현존재는 TV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소위 현대문화적 삶의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자신의 의(依), 식(食), 주(住)의 문화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 정도면 사람들의 일상적으로 열어밝혀져 있음에 부합한다는 만족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현존재는 타인들과 함께 있음 속에서, 즉 타인들을 위해서 또는 타인들을 거슬러 있는 가운데 항시 타인과 다르다는 그 차이에 대해 염려하기도 한다. “이때 이 염려는 타인과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타인들의 뒤에 처져 있기에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를 그들과의 관계에서 만회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현존재가 타인들에 대한 우월함 속에서 타인들을 억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일 수 있다. (타인들과)서로 함께 있음은 이러한 거리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동요하고 있다.”¹⁶⁾ 이렇듯 현존재의 서로 함께 있음은 거리감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거리감이 소유의 측면에서 많이 조장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들 수 있겠다.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과 없음, 특정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에 따라 서로 함께 있음 속에서의 거리감은 아주 심하게 동요한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군에 따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서로 함께 있음에서의 거리감도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인과 더불어 있음에 속하는 이러한 거리감에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즉 “현존재는

16) SZ, 168쪽. 『존재와 시간』, 176쪽.

일상적인 서로 함께 있음으로서 타인의 통치 안에 서 있다.

현존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그에게서 존재를 빼앗아 버렸다. 타인들이 임의로 현존재의 일상적인 존재가능성들을 좌우한다.”¹⁷⁾ 현존재는 거리감이 조장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처지나 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신경 쓰며 타인들의 지배를 즐겨 받으려 한다. 이러한 타인들과 “서로 함께 있음은 고유한 현존재를 완전히 타인들의 존재양식 속으로 해체해 버리며 그래서 타인들의 차별성과 두드러짐이 더욱더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러한 눈에 안 띄고 확정할 수 없음 속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본래적인 독재를 펼친다.”¹⁸⁾

‘사람들’의 세계에는 그 나름의 고유한 존재함의 방식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리감도 서로 함께 있음이 지향하고 있는 평균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평균성은 사람들의 실존론적 성격의 하나인데,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 평균성이 모든 말함과 행위함의 척도가 된다.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욕망하는 것 등이 대체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뾰뚱함을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세계가 IT 강국답게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욕망들이 표출되고 있는가? 청춘(고령화 시대의 청춘에 대한 욕망), 따뜻한 네트워크(신뢰할 수 있는 소속감의 욕망), 체험(자극의 시대, 낯것에의 욕망), 퓨전(융합의 시대, 가치를 낳는 욕망), 더 사치스런 일상(삶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망) 등과 관련된 거대한 욕망의 성장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¹⁹⁾ 그래서 소위 잘 나간다는 책과 TV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17) SZ, 168쪽. 『존재와 시간』, 176쪽.

18) SZ, 169쪽. 『존재와 시간』, 176-177쪽.

사이트들은 거의 이러한 한국인의 욕망의 지도를 보여주고 전망해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안도감과 만족감을 제공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우리들이 욕망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욕망해야 할 것들에 대해 지도를 그려주고 설명을 곁들여준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옷은 입고, 이 정도의 음식점은 알고 다녀야 그리고 이 정도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중산층에 소속이 된다는 식의 멘트도 친절하게 흘려준다. 이렇듯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형성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삶의 스타일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나 표현 그리고 패션 등이 무시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사치스런 일상문화를 각자가 추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준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툭툭 튀는 모든 예외를 감시하며 자신만의 “모든 우위는 소리없이 억압된다. 모든 근원적인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미 오래 전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다듬어진다. 모든 쟁취품들은 다루기 쉬운 것이 되며 모든 비밀은 그 위력을 상실한다. 평균성의 염려가 다시금 우리가 모든 존재가능성의 평준화(균등화)라고 칭하는, 현존재(우리들)의 본질적인 경향의 하나를 드러내 보인다.”²⁰⁾

지금까지 살펴본 일상적인 열어밝혀져 있음과 사람들의 논리를 통하여 우리는 거리감, 평균성, 평준화 등이 바로 사람들의 존재방식들이며 사람들의 ‘공공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세계에서 공공성은 생각보다 그 위력이 대단하다. 방송에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의 욕망의 지도이다 라고 광고해 대면, 그 광고의 힘에서 자유로울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최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끊임 없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소비해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압력을 느끼

19) 참조. 김경훈,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 위즈덤하우스, 2006.

20) *SZ*, 169쪽. 『존재와 시간』, 177쪽.

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세계가 만들어놓은 공공성은 우선 대개 우리의 모든 삶의 해석과 문화적 향유의 방식을 규제하며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탁월하고 근원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공공성이 우리 자신의 해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해주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세계의 공공성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기에, 모든 진실성과 수준의 차이에 대해 무감각한 데에 그 힘의 원천을 두고 있다.²¹⁾

사람들의 공공성의 세계에서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장되지만 자신이 막상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몰래 빠져나간다. 사람들은 모든 판단과 결정함을 지시함으로써 현존재로 하여금 책임감을 빼앗아간다. 또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쉽게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책임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많은 선택사항과 존재부담 등에 대해 우리의 일상성에서부터 면제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을 면제받는 현존재 자신들은 자신들을 환대해 주는 사람들의 세계에 더욱더 편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서로 섞여 있음, 거리감, 평균성, 평준화, 공공성, 존재부담 면제, 환대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 삶에는 어떤 지속성 같은 것이 제공된다. 이 지속성 가운데 우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가끔 자기-자신이 아닌 사람들-자신의 세계에 편승해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뭔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피어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러한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대개 유혹에 약하다. 사람들의 지배의 철저성과 명백성은

21) 참조. SZ, 170쪽. 『존재와 시간』, 177쪽.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검질긴 것만은 틀림없다. 이는 현존재의 더불어 있음이라는 존재양식과 관련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인간으로 특정한 공동체적 삶의 '거기'(Da)에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 사람들 세계에서 더불어 있음을 회피할 수 없는 한, 사람들 세계의 논리와 문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다수의 여러 주체들 위를 떠다니는 어떤 '일반적인 주체'와 같은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사람들 이해에는 '주체들'의 존재를 현존재적이지 않은 현존하는 한 종의 실제로 눈앞에 있는 사례들로 바라봄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의 "단초에서는 오직, 경우가 아닌 모든 것을 유와 종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만이 존재론적으로 존립한다.

'사람들'은 그때마다의 현존재의 종이 아니며 이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불변의 속성으로 발견될 수도 없다."²²⁾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성과 세계에 대해 하이데거는 "사람들'은 실존범주의 하나이며 근원적인 현상으로서 현존재의 긍정적인 구성들에 속한다"²³⁾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우리는 '우선 대개' 일상적인 열어밝혀져 있음 속에서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모자라거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존재의 삶의 일상적인, 긍정적인 한 단면이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존재의미를 나누기도 하며 자신의 미래를 기획한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이야기 세계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현실과 존재의미 그리고 미

22) SZ, 171쪽. 『존재와 시간』, 179쪽.

23) SZ, 172쪽. 『존재와 시간』, 179쪽.

래기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해석해 놓은,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흩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결심한다. 그러한 여행을 준비하는 자는 자신의 세계를 고유하게 발견하고 그 세계를 자기에게 되가져오려고 하며,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를 열어밝혀 보려고 노력한다. 이 때 이러한 노력, 즉 자기의 세계의 발견과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를 열어밝힘은 언제나 은폐와 암흑의 제거로서 그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런 위장을 분쇄하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렇듯 현존재의 삶은 사람들-자기와 본래적-자기의 변증법적인 줄타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더욱이 본래적-자가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주체의 예외적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실존범주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실존적인 변양태의 하나인 것이기에 우리들의 자기이해에로의 길은 힘겹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현존재적 삶의 세계는 더불어 있음의 일상성과 자기 자신으로 있음의 결단성이라는 이중주 협연이 이루어지는 무대라고 할 수도 있겠다.

우리들 모두는 그 무대의 주인공(자기 자신으로 있음)일 때도 있고 관객(사람들-자기)일 때도 있다. 물론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불안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아무래도 관객보다는 주인공이 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공이든 관객이든 공연장이라는 더 큰 세계 안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4. 현존재의 결단성과 본래적 삶

앞에서 우리는 잡담, 호기심 그리고 애매함으로 대변되는 일상적 삶의 존재양식과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 논구하였다. 하이데거가 잘 그려 준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

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한계상황 - 신용과 탄, 고통, 질병, 죽음 등 - 에 직면하여 삶의 다른 계기들도 만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 삶의 또 다른 모습에 주목한 하이데거는 사람들의 힘에만 좌우되는 삶이 아닌 다른 삶, 즉 본래적 삶의 계기와 세계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는 본래적 삶에로의 계기로 불안과 양심 그리고 죽음에 앞서 달려가보는 실존적 결단 등이 있음을 〈존재와 시간〉 제2편 「현존재와 시간성」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존재의미를 바로 시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필자는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는 결단성 개념을 종교의 의미와 연관지어 제시해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불안과 양심의 부름 그리고 죽음을 앞서 보고 결단하여 새롭게 선택한 삶의 방식을 다시 사는 것은 바로 종교적 삶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필자의 종교관에는 어느 특정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자신의 본성의 소리를 듣고 그러한 본성의 소리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성실히 실천해가는 매일의 삶이 실은 종교적인 삶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종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해 본성(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적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종교에 대한 정의는 한 권의 큰 사전이 될 만큼 수없이 많고 또 다양해서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종교의 어원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근본사태와 하이데거의 결단성 개념을 비교하여 종교적 삶의 본질적 의미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²⁴⁾

24)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이전 1920/21년 겨울학기 강의인 종교현상학 입문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삶이 어떻게 현상하고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 바 있다. 하이데거의 종교이해와 종교적 삶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 M. Heidegger, *Die Phänomenologie des religiösen Lebens*(GA60) Vittorio

일반적 의미에서 종교의 본질은 종교를 뜻하는 라틴어 'religio'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규정될 수 있다. 여성형 추상 명사인 'religio'가 'religare'와 'relegere'중 어느 것으로부터 파생되었는지는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두 학설이 대등하게 주장되어 오고 있다. 먼저 're-ligare'는 신과 인간을 다시(re) 묶는다(ligare)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 교부들에 의해 주장되고 뒷받침되어오는 바로써 신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인 인간을 신이 다시(re) 종교를 통하여 인간을 되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종교를 're-legere'에서 온 것으로 보는 관점은 최근 인도 유럽어에 대한 비교언어학자인 벤베니스트에 의해 확고하게 밝혀진 바인데, 종교는 내가 다시(re) 선택하다(legere)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²⁵⁾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험이 아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친지의 죽음, 교통사고, 불치의 병 등 다양한 한계적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경험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험과는 다르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반성적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Modus Vivendi)을 다시 선택(re-legere)하여 그 선택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된다. 이렇듯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태도를 선택하여 정신적으로 다시(re) 태어나서(naitre) 새로운 존재방식으로 귀의

Klostermann Frankfurt a. M., 1994.; 김재철, 「하이데거의 종교현상학」, 한국현상학회 편, 『인간의 실존과 초월』, 철학과 현실사, 2002. 38-75쪽.; 신상희,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의 신학적 유래에 관하여」,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 연구』, 철학과 현실사, 2003. 297-323쪽.

25) “벤베니스트는 첫째 ligare에서 ligio가 나온 예가 하나도 없고, 둘째 3군 동사로부 터 어미 ‘-io’형을 지닌 추상 명사가 형성되는 것은 legirupio(rumpere), deliquio(linquere), oblivio(oblivere), legio(legere)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극히 드물며, 셋째 religare의 추상 명사형은 religatio이어야 한다는 근거에서 religare로부터 religio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박희영, 「철학적 관점에서 본 서양의 종교」, 최영수/임영상 외, 『종교로 본 서양문화』, 역민사, 2002. 32쪽.

(conversio)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적 의미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보다 가치있는 존재방식으로 귀의해서 지금까지의 이기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고 더 큰 뜻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²⁶⁾ 우리는 흔히 종교를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신(新)종교 등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물론 각 종교들의 축적적 전통과 그 속에서의 신앙의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종교에 대해 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종교의 의미와 본질을 밝혀내고 그것과 하이데거의 결단성 개념과 연결짓고자 하기 때문에 각 종교에서 말하는 전통이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의 참다운 의미는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다. 각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자가 있고 그 종교의 전통이 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태는 그 종교를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일시적인 구원이나 열광이 아닌 일상적 삶 전반을 통한 꾸준한 진리의 실천과 삶으로 드러냄이 종교의 본질적 의미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종교의 참다운 의미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선택한 진리나 가르침을 일상적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것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종교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존재의 결단에 대한 하이데거의 생각을 읽어보자.

“결단을 내린 현존재는 자기 자신이 선택한 존재가능의 ‘그 때문에’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자기의 세계로 자유롭게 내준다. 자기 자신에로의 결단성이 현존재를, 비로소 함께 존재하는 타인들을 그들의 가장 고유

26) 참조. 박희영, 「철학적 관점에서 본 서양의 종교」, 24-63쪽.

한 존재가능에서 '존재하도록' 하며, 이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을 앞서 뛰어넘어 자유롭게 하는 심려 속에서 함께 열어뿔 수 있는 가능성에 로 데려온다. 결단한 현존재는 타인의 '양심'이 될 수 있다. 결단성의 본래적인 자기존재에서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본래적인 '서로 함께'가 발원되는 것이지, '그들' 속에서의 애매하고 질투심 섞인 약속들과 수다스러운 친교 그리고 사람들이 도모하려고 드는 일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²⁷⁾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이데거는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 세계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를 끈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결단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결단을 내린 현존재는 사람들과의 더불어 있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 때문에'를 늘 망각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 때문에'의 세계에 깊이 침잠할 때 가장 덜 외롭고 '서로 함께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종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들 세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때문에'를 맞본 그 내면의 기쁨과 힘을 바탕으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염려 가운데 찾아낸 자신의 존재가능과 삶의 방식을 다시-선택함(re-legere)으로써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하는 태도는 바로 종교적 삶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5. 일상 속에서 본래성 회복하기: 불안, 양심 그리고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 봄

1) 하이데거에서 불안(Angst)과 죽음의 철학

우리는 앞선 논의를 통하여 결단한 현존재의 삶과 종교적 삶이 다르지 않다는 바를 밝혀보았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게

27) SZ, 395쪽. 『존재와 시간』, 397쪽.

되는가 하는 본래적 존재가능을 위한 현존재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우리들의 불안과 양심의 부름 그리고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보는 의식 등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논리에 젖어 살지만은 않고 ‘자기 자신’때문에, 즉 ‘자기 자신’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는가? 하이데거는 그 때의 우리들의 근본기분(Grundstimmung)을 바로 불안(die Angst)이라고 명명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듯이 하면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과 위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결단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본래적인 실존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대면하게 되는 때를 죽음을 대할 때,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 볼 때라고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확실한 진리이다. 데카르트에게는 나의 생각함이 나의 존재함을 확보해주는 가장 확실한 진리였지만 키에르케고르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리였다. 이러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사상에 영향을 받은 하이데거는 더 나아가 죽음을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적인 실존으로 향하게 하는 근본사건으로 죽음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개척해 간 것이다. 그는 <존재와 시간> 제46절에서부터 제53절에 걸쳐 죽음의 존재론적 의미를 현존재의 일상성과 대비해가며 집중적으로 논구하였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문득문득 그 동안 내가 구성해놓은 의미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마련해 주는 재미있고 짜릿한 생활을 누리다가도 혼자 있을 때면 짙은 ‘형이상학적 허무감’ 같은 기분을 체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미리 앞서 달려가 본래적인 실존

을 살아내려고 결단할 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의 불안에 대한 용기가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한다.”²⁸⁾

우리는 신문의 부고(訃告)란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속으로는 ‘나는 아니야. 죽음은 아직 나와는 상관이 없어’라고 위로해가며 애써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가져오지 못한다. 시끌벅적한 병원의 영안실에 문안 가서 안타까움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고 여기며 한 번 다녀오는 사건으로 치부해버린다. 이러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일상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죽음을 대할 것을 강조한다.

“모든 현존재는 각기 죽음을 그때마다 스스로 자기 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은, 그것이 ‘있는’한, 본질적으로 각기 그때마다 나의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거기에서 단적으로 각기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의 존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가능성을 의미한다. 사망함에서 드러나는 것은 죽음이 존재론적으로 각자성과 실존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이다. 사망은 사건이 아니라 실존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현상이며 좀더 자세하게 한정되어야 할 탁월한 의미에서의 현상이다.”²⁹⁾

2) 침묵과 양심의 소리

하이데거는 본래성과 비본래성이 뒤엉킨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더불어 있음(Mitsein)에서 본래적 존재가능의 현존재적인 결단의 한 계기로 우리의 양심현상을 든다. “양심은 현존재의 현상으로서, 객관적으로 눈앞에 발견되는 사실이나 때때로 눈앞에 있는 사실이 아니다. 양심은 오직 현존재의 존재양식 안에만 ‘있으며’ 각기 그때마다 오직 현사실적 실존과 함께 그리고 이 실존 안에서 현사실로서 알려진다.”³⁰⁾

28) SZ. 338쪽. 『존재와 시간』, 340쪽.

29) SZ. 319-320쪽. 『존재와 시간』, 322-323쪽.

하이데거는 양심을 현상실적으로 실존하는 현존재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인간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양심은 부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름은 사람들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로 불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불러냄으로서 부름은 자기를 그의 자기존재가능으로 불러세우고 그로써 현존재를 그의 가능성으로 나오도록 앞으로 부르는 것이다.”³¹⁾

하이데거에 의하면 세계-내-존재인 현존재는 특정한 언어와 존재이해의 지평이 테두리 쳐진 세계 안에 거주하면서, 그 세계와의 관계맺음을 통하여 우선 대개 일상적으로 열어 밝혀져 있다. 이러한 현존재의 열어 밝혀져 있음의 방식은 인간의 존재방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처해 있음(Befindlichkeit), 이해(Verstehen) 그리고 말(Rede)이다.³²⁾ 우리는 특정한 세계에 던져져 처해 있으면서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삶의 논리와 문법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살아간다. 그 이해의 정도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무언가를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해석(Auslegung)하면서 살아가는 바는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해와 해석은 어떤 삶의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존재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와의 관계맺음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면서 그 이해하고 해석한 (존재)의미를 말을 통해 나누며 살아간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양심이 부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양심의 부름은 말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때 말은 소리 없는 침묵의 말의 형식이다.

30) *SZ*, 357쪽. 『존재와 시간』, 359쪽.

31) *SZ*, 364쪽. 『존재와 시간』, 366쪽.

32) 인간 현존재의 열어 밝혀져 있음인 처해 있음, 이해 그리고 말 자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존재와 시간』 제29절-제34절. 이기상, 『하이데거의 實存과 言語』, 서울: 문예, 1991. 104-156쪽.

하이데거는 소리 없는 침묵의 형식으로 부르는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그 양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이라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갈 때 '사람들'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한 본래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³³⁾ 직접 하이데거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에 놓여 있는 현존재의 열어 밝혀져 있음은 불안의 처해 있음에 의해서, 가장 고유한 탓이 있음으로 자기 자신을 기획투사함인 이해에 의해서 그리고 침묵하고 있음으로서의 말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존재 자신 안에서 그의 양심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탁월한 본래적인 열어 밝혀져 있음, 즉 침묵하고 있으면서 불안의 태세 속에서 가장 고유한 탓이 있음으로 자기 자신을 기획투사함을 우리는 결단성이라고 이른다.”³⁴⁾

6. 일상의 발견: '사람들 자신'과 '자기 자신'의 긴장 혹은 화해로 삶의 새로움을 꿈꾸다

내던져진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먼저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관찰한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의 자기세계, 공동세계 그리고 주위세계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세계, 공동세계 그리고 주위세계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열어 밝혀져 있는 일상세계에 빚지고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상적 세계는 잡담과 호기심 그리고 애매함이라는 존재양식을 보이는데,

33) 이러한 하이데거의 양심개념을 바탕으로 하이데거 사상이 갖고 있는 윤리학적인 제 측면에 대한 상세한 논구는 다음을 참조. 박찬국, 『하이데거와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2. 89-186쪽.

34) *SZ*, 393쪽. 『존재와 시간』, 395쪽.

이 존재양식 안에서 우리들은 다소 느긋하게 혹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한계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불안과 양심의 부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그러한 마주함의 결단을 통해 일상적 삶의 허무를 느끼며 삶의 또 다른 비약을 꿈꾼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에 빠져들기와 거리두기의 긴장 혹은 화해를 반복(repetitio)하며 삶의 새로움을 꿈꾸며 살아간다. 특히 우리는 실존적 결단을 통하여 일상(사람들 세계)에 거리두기를 시도 하는데, 이러한 결단은 다름 아닌 종교(re-legere)의 참된 의미 - 정신적으로 다시(re) 태어남(naitre), 새로운 존재방식에의 귀의(conversio) - 와도 상통하고 있음도 확인해보았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통해 보여준 현존재의 일상성과 결단성에 관한 숙고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는 실존(Existenz)으로서의 인간과 그러한 인간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살펴본 셈이다. 현존재의 일상성과 결단성! 그것은 우리들의 몸의 욕망과 마음의 욕망의 엇갈림이라는 인간본성의 타락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하이데거는 이에 대해 일상에 빠져들음 일종의 존재론적 움직임의 개념이며 따라서 현상학적인 탐구에서는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³⁵⁾ 오히려 현존재의 세계와의 관련성으로 풀어내었던 것이다.

세계와 인간은 신비스런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은 도구 세계, 사물세계, 사람들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또한 자기 자신의 세계를 형성해간다. 특히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람들 세계와 자기 세계와의 긴장 혹은 화해의 문제는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삶의 과제를 잘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들의 일상적인 열어밝혀져 있음의 세계를 현상학적 해체의 눈으로 잘 드러내야 할 것이며 또한 불안과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봄 등으로 일어나는 탁월하게 열어밝혀져 있음의 세계도 읽어낼 필요

35) SZ, 238쪽. 『존재와 시간』, 246쪽.

가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통하여 사람들 자신과 자기 자신의 긴장 혹은 화해로 엮어지는 우리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그러한 일상의 발견과 더불어 드러나는 인간 현존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이데거의 제시의 길을 따라 일상성과 결단성의 숲 속을 탐사해 보았다. 탐사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숲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에 빠져들면서도 결단의 숲 속에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건립해가는 삶의 긴장과 화해를 모두 맛보며 살아가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발견하였다. 일상의 숲에 참여함과 자신의 결단의 숲을 통한 심기일전(心氣一轉)의 반복은 새로운 자기이해와 자신의 삶의 방식(Modus Vivendi)을 만들어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참고 문헌】

A. 하이데거의 글(전집 순)

Sein und Zeit(GA2).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77.(이기상 옮김,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Was ist Metaphysik(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Wegmarken(GA9),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77.(『이정표 1』, 신상희 옮김, 한길사, 2005).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GA27),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77.(『철학입문』, 이기상/김재철 옮김, 까치, 2006).

Die Phänomenologie des religiösen Lebens(GA60)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 M., 1994.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en zu Aristoteles(GA61),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 M., 1985.

B. 그 밖의 글들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하이데거의 기분 분석을 바탕으로), 청계, 2002.

김경훈,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 위즈덤하우스, 2006.

박찬국, 『하이데거와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2.

리하르트 비서, 『하이데거 사유의 도상에서』, 강학순/김재철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이기상/구연상, 『〈존재와 시간〉 용어해설』, 서울: 까치, 1998.

이기상, 『하이데거의 實存과 言語』, 서울: 문예, 1991.

———, 『하이데거의 存在와 現象』, 서울: 문예, 1992.

———, 『존재의 바람, 사람의 길』, 철학과 현실사, 1999.

———, 『철학노트』, 까치, 2002.

———,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2003.

———, 『다석과 함께여는 우리말 철학』, 지식산업사, 2004.

———, 『존재와 시간(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살림, 2006.

E. 프롬, 『소유인가 존재인가』, 심일섭 옮김, 도서출판 한글, 1991.

폰 헤르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찾아서』, 신상희 옮김, 한길사, 1997.

C. 논문류

구연상, 「Kant 윤리학에서 양심의 문제(하이데거의 양심개념에 근거하여)」, 『인문학연구』(제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김재철, 「하이데거의 종교현상학」, 한국현상학회 편, 『인간의 실존과 초월』(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7집), 철학과 현실사, 2001.

박희영, 「철학적 관점에서 본 서양의 종교」, 최영수/임영상 외, 『종교로 본 서양문화』, 역민사, 2002.

윤병렬, 「하이데거의 죽음-해석학과 그 한계」, 한국해석학회 편, 『후기 하이데거와 자유현상학』(해석학연구 제3집), 지평문화사, 1997.

최상욱, 하이데거의 인간론, 『하이데거 철학의 근본문제(하이데거 철학의 이해 I)』, 철학과 현실사, 1996.

하피터, 「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 “내버려둠”으로서의 결단성(Entschlossenheit) 개념-탈주관적인 의지 개념에 관하여」, 한국하이데거학회 편, 『하이데거 연구』(제13집), 세림 M&B, 2006년 봄호.

【Abstract】

M. Heidegger : The Discovery of Everydayness

- Grounded on the Contemplation on Dasein's
Everydayness and Resoluteness in 〈Being and Time〉 -

Cho, Hyung-Kook

What is everydayness? And what is resolutenes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se two questions by reflecting the meaning of Dasein's everydayness and resoluteness analyzed in Heidegger's 〈Being and Time〉. Heidegger expressed our everydayness as Idle Talk(Das Gerede), Curiosity(Die Neugier) and Ambiguity(Die Zweideutigkeit). Normally, people come to lose their independence when they strive, throughout their daily lives, to adjust themselves to their external circumstances or to other people's opinions. This is the situation of the "they"(Das Man)who have lost the original self, according to Heidegger. Such a "they" spend their daily lives indulging in idle talk, distracted by curiosity, and living in peaceful ambiguity. This is called the "falling" of Dasein. This Dasein, which has been thrown into the world, seemingly without any reason, exists also in anxiety(Angst). If we inquire deeply into the nature of this anxiety, we eventually reach the fundamental anxiety one experiences concerning death. However, when a person does not simply spend time waiting, in anxiety, dreaming about a vague future, but rather positively accepts the fact that s/he, as a human being, is a "being-towards-death" and, with that in mind, lives with serious determination toward the future, that person can progress toward the original self. In this way, human beings project themselves toward their future: in other words, they place stakes in their future. Heidegger calls this "projection"(Entwurf) and this

nature of the being “existentiality.” Also, he pointed out our way of being of Dasein as existence. The meaning of existence lies in its “to be”. Dasein as existenz is able to live its authentic life by resoluteness. Incidentally, when we consider the etymology of religion from re-legere, we can find Heidegger’s concept of resoluteness connected to the fundamental meaning of religion. Heidegger finds the concept of resoluteness and the meaning of religion in one’s own, distinctive potentiality-for-Being by wanting a conscience.

【Key words】 Dasein, Everydayness, Resoluteness, das Man, Modus Vivendi